

# 대한상의 브리프

윤원섭 매일경제 지식부 기자



제88호 2019년 1월 21일



‘세계경제 올림픽’으로도 불리는 ‘다보스포럼’이 올해엔 어떤 화두를 던질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보스 취재를 앞둔 경제지 기자가 미리 들여다 봤습니다.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미리 보는 ‘2019 다보스포럼’

매년 초 그 해의 화두를 제시해온 다보스포럼이 올해엔 ‘세계화 4.0’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의 공식 주제는 ‘세계화 4.0: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만들 세계 구조(Globalization 4.0: Shaping a Global Architecture in the Age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다. 다보스포럼이 새롭게 제시한 ‘세계화 4.0’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새로운 형태의 세계화를 지칭한다.

### 4차 산업이 만들 ‘신경제질서’ 논의

세계화의 모습은 기존 경제 패러다임이 한계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새롭게 바뀌었다는 게 다보스포럼 측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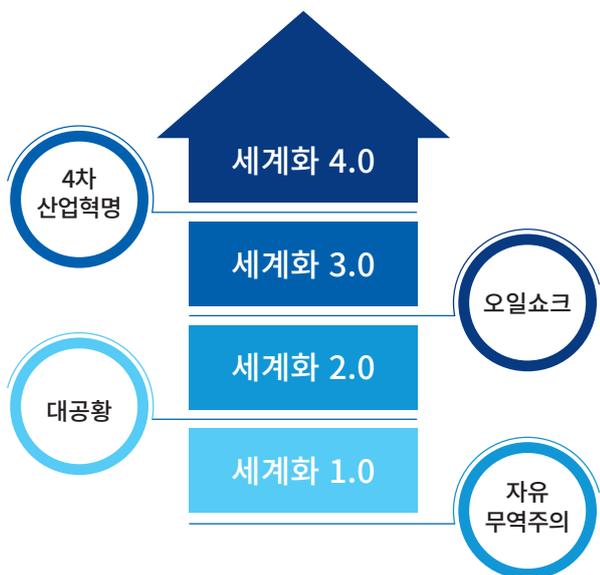
19세기 말 자유무역주의로 촉발된 ‘세계화 1.0’이 시장경제의 한계를 드러낸 대공황(1929년)에 의해 멈춰서고, 정부의 역할이 강조된 ‘세계화 2.0’의 흐름을 만들어 냈다. 하지만 오일쇼크 등 정부의 시장통제가 실패한 사례들로 인해 신자유주의가 대두하며 국가간 첨단기술(선진국)과 노동력(개도국)이 결합하는 ‘세계화 3.0’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세계화 3.0’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모든 산업과 기술이 하나로 연결되고 융합되는 ‘초연결사회’로 접어들었고 기술혁신은 유례없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인공지능(AI), 자동화, 통신망 등의 발전으로 인해 기존 인력이 대체되고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시장도 형성되었다.

다보스포럼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술혁신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세계는 더 이상 강대국 위주의 패권주의를 이어갈 수 없게 되었다”면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기 위해 새로운 글로벌 구조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올해 주제 선정에 대해 설명했다.

### [ 다보스포럼이 규정한 ‘세계화 흐름’ ]



다보스포럼은 지난 2016년 ‘4차 산업혁명의 이해’를 주제로 내세우면서 4차 산업혁명을 글로벌 화두로 내세운 바 있다. 당시 기술문명 발전이 가져다 줄 인류의 미래를 집중 조명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로부터 3년이 지난 2019년 현재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 기술 진보와 더불어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방위적 변화에 대해 전 세계가 어떻게 대응하고 협력할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세계경제포럼은 판단한 것이다.

## ‘보호무역주의 해법’도 논의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은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기에는 포퓰리즘이 부상하기 마련”이라면서 “이 같은 위기의 시대에는 보호무역주의와 민족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 구조 구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인류가 새롭게 협력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비극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세계경제포럼에서는 미중 무역분쟁, 보호무역주의, 브렉시트 이후 유럽 등 국가 이기주의가 빚어낸 경제적 갈등에 대해 공동의 이익을 기반으로 한 해법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기술 진보가 불러올 국가 간 기술 격차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책도 중요한 주제로 다뤄진다. 아울러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지정학 문제도 세계 구조의 핵심 이슈인 만큼 빼놓지 않을 전망이다.

## ‘성장과 환경의 관계’ 강조할 듯

‘성장과 환경의 유기적 관계’ 및 ‘환경리스크’ 완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어젠다별 세부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다.

다보스포럼측은 현재의 경제성장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성장둔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반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한다는 것은 환경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시장의 큰 잠재력으로 활용할 기회를 얻는 의미이기도 하다. ‘기업 및 지속가능 발전 위원회(BSDC)’는 2017년 보고서를 통해 친환경 시장이 12조 달러의 시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금융공사(IFC)에선 파리기후협약은 향후 29조 달러의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크리스티아나 팔머 UN 사무차장은 리더의 역할, 인센티브, 경제지표의 개선을 먼저 제안했다. 특히 경제지표는 환경 및 복지를 아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립 국제금융공사 CEO는 정부만의 힘으로 환경 오염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시나 지방 단위로도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부문의 투자나 혁신 역량이 이를 주도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경제포럼측은 “지속가능한 성장으로의 전환은 많은 노력과 고통이 수반된다”며 “인류가 농업혁명, 산업혁명, 디지털혁명을 이뤄온 것처럼 환경관리에 대한 도전에도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 기대감을 표했다.

## 국가정상 등 글로벌 빅샷 총출동

다보스포럼이 주목받는 것은 무엇보다 글로벌 빅샷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대적 고민을 함께 격의 없이 토론한다는 점 때문이다.

다보스포럼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 국가 정상급 참가자만 72명에 이른다.

#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주요 국가 정상으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응우옌 쉰언 폭 베트남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 등이 참석한다. 중국에서는 왕치산 국가부주석이 참가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2년 연속 참가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최근 불참을 선언했다. 하지만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등은 대부분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과 미중 무역분쟁 관련 회동 여부가 주목된다.

국제기구 중에서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등이 다보스를 찾을 예정이다.

조 케저 지멘스 회장,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MS) CEO, 지니 로메티 IBM 회장, 다니엘 장 알리바바 CEO 등 글로벌기업의 최고 경영진도 대거 참석해 4차 산업혁명의 미래에 대해 조명할 계획이다.

최근 글로벌 경기 하강과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투자 전략과 관련해선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 데이빗 루벤스타인 칼라일그룹 회장 등 월가 거물들이 해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들은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과 월가의 대응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



## [ 2019 다보스포럼 주요 일정 ]

날짜	주제
22일 (화)	<b>세계화 4.0의 형성</b> -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 구조에 대해 심층 논의 - 클라우드 슈밥 회장,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등  <b>4차 산업혁명 시대 비즈니스 리더십</b> - 4차 산업혁명에서 찾을 수 있는 기회와 리더십 논의 - 케네스 프레이저 MSD CEO, 아난드 마힌드라 마힌드라그룹 회장 등
23일 (수)	<b>환경을 위한 뉴딜</b> - 자원관리 기술 및 환경 리스크 완화대책 논의 - 시에전화 중국발전개혁 위원장, 카를로스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 등  <b>지정학 전망</b> - 국제정치 미래에 대해 논의 -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 강경화 외교장관 등
24일 (목)	<b>디지털 신용과 변화</b> - 중국의 디지털 시장 변화와 미래 논의 - 클라우드 슈밥 회장, 다니엘 장 알리바바 CEO  <b>세계화 4.0: 중국의 변화 방향</b> - 세계의 공장으로서 성장한 중국이 다음 세계화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논의 - 빌 원터스 SC은행 CEO, 제프리 민팡 멩니우유업 CEO 등
25일 (금)	<b>글로벌 경제 전망</b> - 미래의 경제협력이 공정한 협업 구조로 형성되기 위한 방법 논의 -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등

# 국내·외 경제지표

2019년 1월 21일 기준

## 1. 국내·외 경제성장률

(단위: %)

	2017	2018 <sup>(E)</sup>	IMF		OECD	
			2019 <sup>(P)</sup>	2020 <sup>(P)</sup>	2019 <sup>(P)</sup>	2020 <sup>(P)</sup>
한국	3.1	2.8	2.6	2.8	2.8	2.9
세계	3.7	3.7	3.7	3.7	3.5	3.5
미국	2.2	2.9	2.5	1.8	2.7	2.1
중국	6.9	6.6	6.2	6.2	6.3	6.0
일본	1.7	1.1	0.9	0.3	1.0	0.7
EU	2.4	2.0	1.9	1.7	1.8	1.6

\* E : 잠정치(Estimate) / P : 예상치(Projections)

## 2. 환율·유가<sup>1)</sup>

(단위: 원(환율), 달러(유가))

	2016	2017	'18.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원/달러	1,161	1,131	1,123	1,121	1,121	1,131	1,129	1,123
원/엔(100엔)	1,068	1,009	1,008	1,010	1,003	1,003	996	999
원/위안	174.4	167.5	167.1	163.7	163.4	163.3	162.7	162.9
원/유로	1,283	1,276	1,312	1,296	1,305	1,300	1,282	1,277
유가(Dubai)	53.8	53.2	73.1	72.5	77.2	79.4	65.6	52.9

## 3. 산업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2016	2017	'18.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산업생산	3.0	2.3	1.4	1.6	-4.9	6.9	0.2	-
소매판매	3.9	1.9	5.5	5.7	0.5	5.1	1.0	-
설비투자	-1.3	14.1	-10.1	-11.3	-19.2	9.4	-10.0	-
수출	-5.9	15.8	6.1	8.7	-8.1	22.6	4.5	-1.2
수입	-6.9	17.8	16.4	9.4	-1.6	28.1	11.5	0.9

1) 환율은 월 평균 기준, 유가는 기말 기준